

21대 총선 공약 발굴 스타트

전북도, TFT 키포프 회의 개최... 14개 시·군 현안 해결 위한 210개 사업 1차 발굴

전북도는 16일 전북연구원에서 전북도, 14개 시군, 전북연구원이 참여하는 21대 총선 공약 발굴 TFT 키포프 회의의 열리고 현안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사업 발굴에 착수했다.

전북도는 2020년 4월에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약사업으로 제안할 전라북도 정책사업과 시군별 현안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농업농촌, 문화관광, 복지행정, 산업경제, 지역개발·SOC, 새만금·환경' 6개 분야로 TFT(특별연구팀)을 구성했으며, 공약으로 적합한 사업 발굴과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 구체화 등을 거쳐 12월까지 총선공약으로 제안할 사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키포프 회의에는 전북도 정책기획관과 14개 시·군 기획부서장 및 팀장,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7명이 참석해, 시군별로 1차 발굴한 210

건의 사업 설명과 총선공약 발굴 방향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으며, 발굴사업이 총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다짐했다.

시군별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개발·SOC분야에서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익산),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정읍),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고창) 등 56건, 농업과 농촌분야에서 지리산 레츠런 파크 조성(남원), 레저·문화 경마공원 조성(김제), 수직농장단지 건설(부안) 등 37건, 복지행정분야에서 전북혁신도시 연수 클러스터 구축(완주), 국가안전교육원 조성(임실), 소방심신건강수련원 설립(순창) 등 36건, 문화관광분야에서 조선역사 테마 단지 조성(전주), 동부권 관광거점 재생프로젝트 사업(진안), 라제통문 역사문화단지 관광자원개발(무주) 등 32건 등이 있다.

또한, 산업경제분야에서 청년창업타운 조성(군산), 차세대 방사광속기 구축(정읍), 전력에너지 4차산업 클러

스터 구축(고창) 등 31건, 새만금·환경분야에서 새만금 사이언스 파크 조성(군산), 국립 산림교육문화센터 조성(남원), 장수 군립공원 장안산권 확충 조성(장수) 등 18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철모 정책기획관은 "총선은 전북의 발전과 현안해결 등 전북 뭉 갖기에 좋은 기회이므로, 제안된 사업이 총선공약으로 채택되기 위해 논리보강과 지속적인 이슈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21대 총선 공약 발굴 TFT 키포프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추가 사업발굴과 공약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 공약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14개 시·군,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 등 도내 출연기관 및 공공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총선 공약 발굴과 연계해 2021년 국가예산 대상사업, 메가프로젝트 등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김진성기자

재계 서열 26위 '하림' 자산총액 11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

전북도 도총그룹 하림그룹이 자산총액 11조 9,000억원으로 재계 서열 26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말 기준 자산 5조원 이상을 보유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했다.

하림그룹은 지난 2017년 10조 5,000억원으로 재계 서열 32위로 발표했으나, 2018년 11조 9,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의 자산을 늘리며 6단계 상승했다.

지난 3월 익산시 마동에 새롭게 동지를 둔 하림그룹은 익산 합영을 제4산업단지에 4,000억원을 투입, 공유주방 개념의 종합식품단지 '하림푸드 콤플렉스' 사업과 글로벌 경영을 위한 팬오션 인수, 사료 사업 설비확대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산 규모를 확대 했다.

특히 익산시 망성면에 위치한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 익산공장에 2,500억원을 투입 스마트팩토리를 완성해 가정간편식, 양념육 등 현대인의 식

생활에 맞춘 다양한 편의제품을 생산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림그룹은 또한 바이오 헬스 및 물류,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사업확대를 통해 세계적 식품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하림그룹은 현재 팬오션을 비롯해 제일사료, 하림, 선진, 판스코, NS홈쇼핑 등 6개 상장법인과 96개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1만6000명 정도이다.

/익산=장인천기자

전북체육회, 스포츠 재능기부 사업 본격 추진

16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도내 대학과 실업팀 선수와 지도자들이 초·중·고교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벌이는 '2019 스포츠 재능기부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꿈나무 발굴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인기가 높다. 재능기부 첫 주자로 최근 호원대학교 씨름부 선수들이 삼례동초를 방문해 이론과 실기 등 전문 기술을 비롯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1대1 교육으로 진행했다.

도 체육회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과 학교 등을 상대로 다양한 종목에 걸쳐 보다 질 높은 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형원 사무처장은 "재능기부자와 학생, 동호인 등 모두에게 호응이 좋다"며,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사격과 검도, 에어로빅, 씨름, 배드민턴, 양궁, 테니스 등 종목의 전문 선수들이 총 22차례 걸쳐 재능기부에 동참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민중행동 출범식.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촛불정신·518정신 계승! 전북민중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24시간 비상근무체제 돌입

전북도, 예찰 강화로 피해 최소화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전북권 3개월 기상전망을 보면,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고 지역편차가 크겠다고 전망했다.

도에서는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18일부터 5월 14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련 13개 협업분야와 유관기관 실무자를 소집해 '재난 상황근무자 교

육'을 실시했고, 4월 12일에는 집중호우 대비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4일에는 14개 시군 재난관련 실과장이 함께 참여하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영상회의(도민안전실장 주재)를 열어 시군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전북도는 2019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목표를 '취약지역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통한 인명 및 재산보호'로 하고, 7대 추진전략과 35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13개 협업기능별 상황근무 원칙을 마련하여 임무·역할을 지정하고 24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예비특보단계부터 신속한 상황판단 회의 운영과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취약지구, 산사태 취약지역,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추진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추가 설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호우 시 차량 침수방식이 우려되는 둔치주차장에 대해서는 강우 예보시 사전 통제 및 대체 주차장 마련으로 차량침수 및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복구 인력·장비·자재 현황 파악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비상연락체계 구축, 방역물자 및 재해구호세트 확보·비축으로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방송과 에스엔에스(SNS)문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도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진성기자

학업에서 벗어나 마음껏 나누며 즐기는 시간

전북도, 내일 전통문화전당서 전국 유일 청소년상담축제 개최

상담존·보호존·체험·자립존 운영...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2019년 제7회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축제'가 내일 한국전통문화의 전당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청소년상담축제는 전북 유일의 청소년 상담축제로서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며 전북 14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푸드림),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행사다.

'이제는 상담해 볼'이라는 주제로 펼쳐질 이번 축제는 청소년 상담을 테마로 한 상담존, 보호존, 체험·자립존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고 청소년의 자기이해와 건강 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존에서는 전북도 및 시군 청소년상담사들이 청소년들의 진로성격 등에 대한 고민을 타로·마술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즉석 상담부스 운영을 통해 다채롭고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존에서는 학업, 청소년 문제인 자살·흡연·알콜 및 게임 중독 등에 대한 검사 및 체험과 연계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체험·자립존에서는 책상 앞, 스마트폰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청소년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고 참여

할 수 있는 원예체험, 예코백(파우치) 만들기, 네일아트, 디지털 만들기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전북도 청소년상담축제에서는 면화, 효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5명을 선발, 포상·격려하는 '제6회 전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 시상식과 청소년의 자치문화 활성화를 위한 학교 및 단체 동아리 12개소를 선정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상담축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도내 청소년들과 학부모,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하부민이라도 학업으로부터 벗어나 걱정은 나누고, 기쁨을 마음껏 나누며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